

고객 대면 접촉 최소화

국민연금공단,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문객 편의성 제고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객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신청서를 활용하는 전자서식 기반의 창구로,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고객용 터치스크린을 설치해 증명서 발급, 노령연금 청구 등 21종의 신청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방문·대면 중심의 업무처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감 4

분씩 단축해 업무 효율성 증대, 종이문서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경비 감소 등 연평균 2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향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공단의 업무 서비스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디지털 창구 도입을 계기로 디지털 업무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지부가 지난날 26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제48차 정기대의원회에서 2020년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최우수지역본부 선정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2019년에 이어 2020년 1등으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본부장 김영하)가 지난날 26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제48차 정기대의원회에서 2020년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됐다. 이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을 달성한 성과다.

전북지부는 이날 지역본부에 대한 표창에서 공제 수입환산 1위, 체크카드 1위, 제휴카드 1위 등 사업부문은 물론, 모든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인표창인 우수 임직원에 대한 표창에서도 ▲금융위원장 표창, 고창신협 고석원 이사장 ▲금융감독원장 표창, 원광신협 정영권 이사장 ▲종합경영평가 우수상 표창, 전주

북지신협 운영길 전주 ▲종합경영평가 우수상 표창, 우리신협 김재영 과장 ▲종합경영평가 우수상 표창, 전주 삼천신협 조용관 상무 ▲종합경영평가 특별상 표창, 정읍신협 김신 이사장 등 다수가 수상했다.

김영하 본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전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기에 더욱 값진 성과라고 한다"며 "2021년 올 한 해에도 전북지역민과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 정신과 신협 운동 이념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무증상 수검자에서 코로나 노출 0.39%

4085명 중 16명이 '양성'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건강증진연구소(소장 나은희)는 건협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77일간 건강검진 받은 수검자 중 본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40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항체검사 결과 16명(0.39%)이 양성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SARS-CoV-2 항체 양성은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 후 회복된 상태 혹은 현재 무증상이지만 감염된 상태를 나타낸다.

양성으로 확인된 16명 중 6명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이력이 있었다. 특히 이 6명 중 4명은 지난 2020년 2월~3월에 확진된 후 회복된 케이스다.

이는 코로나19 회복 후에도 개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항체가 7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연령별, 성별, 비만, 당뇨, 고혈압 및 흡연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SARS-CoV-2 집단 발생지인 서울, 대구 및 인근 지역에서 높은 항체 양성률을 기록해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은희 건강증진연구소장은 "이번

'올 한해 건강, 우슬·천궁·삼백초로 준비하세요'

농진청, 뼈마디 튼튼하게 해주는 약용작물 활용 방법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일 봄을 맞아 기운을 북돋우고 나른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용작물로 '우슬, 천궁, 삼백초'를 추천하고 가정에서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찬 기운이 물러가고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봄에는 겨우내 탁해진 피를 맑게 하고, 움츠러들었던 뼈 마디마디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초로 건강을 돌보기도 한다.

우슬(쇠무릎)은 들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로, 굵은 마디가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쇠무릎'으로 불린다.

쇠무릎은 관절염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팔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준다. '트리테르페노이드'란 사포닌 성

삼백초는 꽃과 뿌리가 흰색이고, 꽃피는 시기에 줄기 끝부분에 달리는 2~3개 잎이 하얗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뿌리를 제외한 줄기 등에 들어있는 정유성분은 항암, 항균, 해독작용과 함께 부기를 내리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변비 치료제로도 쓴다. 삼백초는 차, 건강식 요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물 0.5리터에 전초(잎, 줄기, 꽃, 뿌리) 10~15g 정도를 넣고 달여 마시기도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로 약용작물과장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약초로 다스려 활력 넘치는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약초를 섭취할 때는 각자 체질에 맞게 적당량을 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까지 우수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와 중소기업 가맹점 지원을 위한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본부를 발굴해 브랜드·디자인 등의 초기 사업화와 마케팅·스마트화 등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중기청은 그간 업종 특성과 성장단계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본부를 '창업초기'로 성장·대표 브랜드'의 3단계로 분류하고 업종 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해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규모는 약 9개사이며 ▲창업초기 단계는 약 5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성장 및 대표 브랜드 단계는 약 4개사에 최대 5,000만원까지 프랜차이즈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본부로 ▲창업초기 단계는 창업 1~3년 이하 소상공인 또는 가맹본부로 비의식업종에 한하며 ▲성장단계는 창업 4~10년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0개 미만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정보 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청 평가는 혁신성, 성장 가능성과 상생협력 활동 등에 대해 서면·대면 평가로 이루어지며 수준평가·공정위 부여되게 된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s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누리집(www.fc.stiz.or.kr)을 통해서도 17일까지 확인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돋움해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과 상생을 실천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개장

서부지방산림청과 사단법인 숲길은 지리산둘레길 해빙기 준비를 마치고 2일부터 개장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준비에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안한 이용을 위해 노면의 안전상태 및 안내시스템 점검과 안전표지 1,200여개, 쉼터, 다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내간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서부청에서는 금년도에 ▲지리산둘레길 모니터링단 운영 ▲센터별 마을 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주민참여 운영 ▲현장 모니터링과 안내원 배치 등 편안한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관리 ▲일일민, 청소년 및 사회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22명의 숲길 등산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리산둘레길은 총 연장 295km이며, 자세한 정보는 사단법인 숲길에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jisantrail.kr/)와 현장 안내센터(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에서 지도,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저금리 시대... 신협, 목돈 마련 위한 특판 상품 출시

연 최고 6.5% '플러스정기적금' 특별 판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6개월 간 연 최고 6.5% 이율의 '플러스정기적금(신한카드연계형)'을 한정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플러스정기적금은 신한카드 생애 첫 고객 또는 최근 6개월 간 이용 실적 없는 휴면 고객 대상 특판 상품으로, 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월 30만 원 (만기 1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연 2.0%로 신협 제휴 신한카드 신규 발급 후 발급일 포함 3개월 간 총 20만 원 이상 이용 시 우대이율 4.0%를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신협 입출금 통장에 ▲플러스정기적금 자동이체 등록(0.2%) ▲적금 가입일부터 연 3개월간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0.1%) ▲신한카드 결제 계좌로 등록(0.2%) 시 총 0.5%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협-신한 제휴카드는 총 11종으로 쇼핑, 교통비, 주유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모든 사용처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하이포인트 카드, 특별한 쇼핑의 순간! 쇼핑카드와 리브플래티늄카드 등이 인기가

신협중앙회 정인철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신한카드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신협 제휴 신한카드를 이용할 경우 연 최고 6.5%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부담 없는 조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의 목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협 플러스정기적금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협 모바일 통합 플랫폼 '온뱅크' 및 상품 취급 신협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우대조건 중 신한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문의는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첫 급여이체 고객 대상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협은행 입출금계좌로 처음 급여를 이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깨어나라, 개구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해당 기간에 농협은행 입출금계좌로 급여(50만원 이상)가 처음 입금된 고객이 '인터넷·스마트뱅킹', '올원뱅크' 메인화면 하단의 '이벤트' 탭에서 응모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1등 다이슨청소기(1명) ▲2등 에어팟프로(5명) ▲3등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300명)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체된 급여 금액이 건당 150만원 이상인 고객은 플라워박스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5월중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등



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SNS 홍보 우수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협은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리그램 및 댓글을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200명)'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여유자금, 한 계좌 안 별도 구분 보관 가능

'JB MY 금고' 신상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한 계좌 안에서 여유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입출금상품 'JB MY 금고'를 출시했다.

JB MY 금고 상품은 당해 일반 입출금 통장과 연결해 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금고 기능을 스마트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 금고계좌에 보관된 금액은 조건 없이 하루만 보관해도 연 이율 0.8%(2월 22일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파킹통장이다.

JB MY 금고 계좌를 통한 결제, 이체, 출금 등이 불가능하고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여유자금 지키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 기념으로 JB MY 금고 계좌에 10만원 이상 보관 시 50명에게, 300만원 이상 보관 시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및 제로금리 시대의 단기자금 운용을 원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함께 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우농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일부터 26일까지 무진장축협(송재근 조합장)과 순정축협(고창인 조합장)의 한우농가 4호를 대상으로 사양, 개량, 질병, 번식 등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해 실시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 축산컨설팅위원회의 인력풀을 활용해 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은 2년(농가당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컨설팅으로 한우농가는 번식성적, 출하성적, 농가경영 등 분야에 걸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국립공원의 날' 기념 주간행사

지리산 전북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제1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1일부터 7일까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탐방객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Net Zero)을 주제로 녹색복원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립공원 역할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주 행사로 백사골탐방안내소에서 탄소흡수 식물기트 나누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 6일, 7일에 백사골진입도로(구 내림매표소에서) 지역특산품을 할인(정가대비 50%) 판매하는 '국립공원 드라이브 스투 농산물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유산 사무소 국립공원원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원사사무소(소장 양혜승)는 제1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3일부터 7일까지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및 야영객을 위한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 나눠주기 ▲식물 개화 인증샷 이벤트 ▲국민 참여 축하 메시지 쓰기 등의 행사를 운영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린다.

행사는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일원에서 운영되며,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는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